

광주 중견업체 모아건설, 세종시 아파트 부실시공

일부 건물 철근, 설계보다 적게 투입 공정률 65%...계약해지·주소송 예고

광주지역 중견건설업체인 모아건설이 세종시 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를 부실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건물에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들어간 것이 확인돼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세종시에서 현재 234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중인 모아건설은 당장 부실시공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모아건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뒤편 도담동(1-4생활권)에 건립 중인 모아미래도아파트의 일부 건물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청이 지난 18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비파괴 검사를 통해 15개동인 이 아파트 건설은 당장 부실시공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과, 16곳에서 철근이 설계보다 적었다. 수평철근을 12~15cm 간격으로 시공해야 하는데, 이 간격을 1~8cm 가량 넓혀 시공했다. 일부는 철근이 설계의 절반에 불과했다. 조사는 4개 동 전체의 벽면이 아닌 일부 층의 벽면을 샘플로 선정, 무작위 진행된 것어서 전수조사를 벌일 경우 부실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723가구의 이 아파트는 현재 공정률 65%로, 오는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미 끝조 공사가 끝나, 재시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행정청은 광주지역 업체로 철근물 중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은 4개동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정화기업)가 공사금액을 돌려받고 모아건설과

다툼을 벌이다 고의로 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청은 모아건설 시공 아파트 전체(3개 단지)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해 정밀구조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공사·감리자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및 감리회사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요구할 방침이다. 감리회사는 원양건축·담건축 등 두 곳이다. 고의로 부실 시공한 정화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모아건설 관계자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문제가 되는 건물은 서둘러 보수 및 보강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입주 예정자들의 대규모 입주 거부 가능성은 물론, 계약 해지와 주소송이 예상된다. 보수·보강공사를 하더라도 안전성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행정청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며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생면부지 노인에게 “형님” 알고 보니 삼짓돈 사기범

후배인 것처럼 속여 접근 10차례 절도 50대 검거

기억력이 떨어지는 노인에게 마치 고향 후배인 양 접근해 주머니를 텅 사기범이 경찰에 걸렸다.

절도 및 사기 전과가 10건이 넘는 정씨(52)씨는 지금까지 주로 심신이 미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여왔다.

정씨는 지난 1월7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사는 A(85)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접근했다. 할아버지는 불편한 다리를 끌고 현금을 입금하려 동네 우체국에 가는 중이다.

골목길을 지나던 A할아버지에게 정씨는 “형님”이라고 부르며 아는 체를 했다. 정씨가 “오랜만입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몸도 불편하신데 같이 가드리겠습니까”라며 살갑게 다가오자 할아버지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후배인 줄로만 알고 경계를 풀었다.

정씨는 A할아버지와 길을 동행하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할

아버지의 점퍼 안주머니를 뒤져 현금 132만원이 담긴 두툼한 봉투를 꺼내 달아나기 시작했다. 자녀가 준 용돈을 받아 아픈 아내와 함께 사는 할아버지는 순간에 돈을 빼앗기고 어안이 병병해졌다.

하지만 정씨는 그가 만났던 다른 봉투에서 지문이 발견되면서 경찰에 달미를 잡혔다.

정씨는 2009년과 2010년에 화순 일대에서 노인들에게 자신을 복지시설 관계자라고 속여 정부로부터 기초생활 수급비나 장애인 수급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는 지원 자격을 갖추려면 통장에 잔고를 남겨서서 안 된다며 노인들로 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해서 달아났다.

또 지팡이를 짚고 걸거나 외관상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노인들을 노려 금품을 훔쳐왔다.

광주 북부경찰은 20일 정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종현기자 golee@kwangju.co.kr

‘폭행 교사’ 학교서 카드게임 했다

다른 교사 5명과 함께 시교육청, 추가 비위 확인

광주 K고의 ‘폭행 교사’ 사건의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교내에서 다른 교사들과 함께 카드게임을 했다는 추가 비위 사실을 파악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폭행 교사에 대한 진상 조사과정에서 S교사가 지난해 10월 소풍가는 날 교내 교직원 휴게실에서 다른 교사 5명과 함께 카드게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S교사가 학부모에게 아이의 자

퇴원을 강요하면서 해당 학생에 대해 “이런 아이는 사회약이다”, “학교 졸업해봐야 사회를 좀 먹는 아이”라고 막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카드게임은 1차례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돈을 걸고 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자퇴 강요 부분은 해당 교사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S교사에 대해 교장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교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직위해제하고 징징계를 요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물의 날’ 앞두고 광주천 오염물 제거 훈련
‘세계 물의 날’(22일)을 앞둔 20일 광주시 서구 광천 1교 인근 광주천에서 자연보호중앙연맹 광주북구협의회 회원과 북구청 공무원들이 물 위에 뜬 오염물질 제거 훈련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채용 사기’ 피해자 13명으로 늘어

해외도피 교사 계좌 추적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수백차례 걸쳐 송금 확인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정교사 채용 및 취업 알선을 대가로 수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사건(광주일보 2월19일자 6면)과 관련, 해당 교사가 대학 추가 합격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것이 새롭게 확인됐다.

광주남부경찰은 “이들의 대학 입학에 힘을 써주겠다는 D고 교사 김(40)씨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는 강모(여·44)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광주 모 사립대에 추가 합격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해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2차례에 걸쳐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D고 교사 김씨에게 속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13명으로 늘었고 피해 금액도 6억50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아울러 해외 도피중인 김씨의 3개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을 추적, 지난 1월1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진 A씨 등 6명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30만원~1200여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정욱기자 halo@kwangju.co.kr

‘가짜 조업허가증’ 걸고 불법조업 중국 어선 적발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께 신안군 흑산면 흥도 북서쪽 50km 해상에서 94t급 중국 어선 N호 등 2척을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하고 관련자를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조기 등 잡어 3951kg을 포

획하는 등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다.

해경조사결과, 이들은 다른 선박에서 받은 조업허가증을 자신의 배에 걸고 마치 정식 허가를 받은 선박인 것처럼 눈속임하는 방식으로 불법 조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에서 나포된 중국어선은 실제 배 크기가 허가증에 적힌 배 규모(68t)보다 커 추궁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카드사 직원인데...” 훔친 카드 비밀번호 알아내 돈 인출

○병원 간호실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뒤 “카드회사 직원”이라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알아내 곧바로 현금을 인출해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2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45)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A병원 간호실에서 김모(여·26)씨 신용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가는 등 93차례에 걸쳐 전국 병원 간호사실 등을 돌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갑을 훔친 뒤 현금이 적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회사 직원이라며 속이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 120만원을 빼내가는 대담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명.

/이종현기자 golee@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료전적 시공상담
유시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목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탐방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가지...

결혼정보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출연, 전주고등학교출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남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스텝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민주시 서산동) (063) **275-7766**